

# 펼 펼쳐 난 고의정... IBK '새 희망'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의 8년 차 아웃사이드 히터 고의정(사진)은 이번 2025-2026시즌 들어 팀 내에서 존재감이 없었다.

11일 현대건설과 홈경기 직전까지는 팀이 올 시즌 들어 치른 20경기에서 교체 선수로도 기용되지 못했던 것. 아시아 쿼터 알리사 킨켈라(등록명 킨켈라)와 육서영, 황민경 등에게 밀려 출전 기회가 돌아가지 않았다. 그랬던 고의정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11일 현대건설과 대결에서 선발 출전한 킨켈라가 부진해 보이자 고의정을 대신 투입한 것. 5-6으로 뒤진 2세트 초반 킨켈라 교체 선수로 올 시즌 처음 코트를 밟은 고의정은 11-14에서 오픈 공격으로 첫 점수를 뽑았다. 2세트 2득점, 3세트 3득점으로 예열을 마친 고의정은 세트 점수 1-2로 뒤진 4세트에서는 선발로 나서서 2-2 균형을 깨는 킥



올 시즌 팀내 존재감 없이 지나다 킨켈라 부진에 땀땀으로 첫 출전 현대건설전 고비마다 오픈 공격

오픈 득점을 포함해 3점을 사냥하며 25-19 승리에 힘을 보탤다. 그는 최종 5세트에도 1-0에서 양효진의 공격을 가로막은 데 이어 5-2에선 점수를 벌리는 오픈 공격 득점으로 팀의 세트 점수 3-2 역전승에 앞장섰다. 고의정이 올 시즌 자신의 첫 출전 경기에서 기록한 성적표는 블로킹 1개를 포함해 10득점에 공격 성공률 52.9%. 상대 공격수의 공을 받아내는 디그 16개를 기록했고, 리시브 효율도 38.9%로 나쁘지 않았다. 기업은행이 1, 2세트를 내주고도 내리 세트를 잡으며 4연승을 달성할 수 있었던 데는 고비마다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고

디그 16개 안정적 수비도 돋보여 역전승에 팀 4연승 결정적 도움 볼배구 진출 조커로 맹활약 예상

안정적인 수비를 펼친 고의정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고의정으로서 올 시즌 처음 나선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쳐 기업은행의 새로운 공격 옵션임을 여오현 감독대행에게 각인시켰다. 그는 2018-2019시즌 신인 드래프트 때 2라운드 5순위로 KGC인삼공사(현 정관장)에 입단한 8년 차 선수다. 첫 시즌 8경기, 두 번째 시즌 14경기에 이어 2020-2021시즌부터 세 시즌 연속 30경기 이상 출전했다. 특히 2021년 12월 13일 현대건설전에서 개인 한 경기 최다인 17점을 기록하는 등 고의정은 2020-2021시즌 30경기에서 170

득점(경기당 평균 5.6점)을 기록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2대 2 트레이드로 한국도로공사 유니폼을 입었고, 한 시즌을 뛰던 뒤 2024년 6월 미들 블로커 김현정과 맞트레이드 되면서 기업은행에 새롭게 등지를 틀었다. 올 시즌 첫 출전에서 여오현 감독대행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인 수비나 리시브에서도 큰 실수만 하지 말자는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갔다"면서 "상대가 나에게 대한 분석을 잘 안 하고 있었던 탓에 공격이 잘 통한 것 같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4세트부터 내가 아웃사이드 히터로, 빅토리아(랜차)가 아포짓 스파이커를 돌아갔는데 나로서는 더 잘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간 느낌이라서 큰 어려움이 없이 편했다"고 설명했다. 고의정이 4위 기업은행의 볼배구 진출에 힘을 보태는 조커로 인상적인 활약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글 사진-연합뉴스

# 승격팀의 반란... PSG 잡았다

파리FC 프랑스컵 16강 진출 디펜딩 챔프 탈락 수도 안겨

프랑스 프로축구 승격팀 파리FC가 최강 파리 생제르맹(PSG)에 불의의 일격을 가하고 프랑스컵(쿠프 드 프랑스) 16강에 오르는 이변을 연출했다. 파리FC는 13일 오전(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에서 열린 2025-2026 쿠프 드 프랑스 32강전 원정 경기에서 후반 29분 조나단 이코네가 결승골을 터뜨려 PSG에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이 대회 '디펜딩 챔피언'이자 최다 우승팀(16회)인 PSG에 16강에도 오르지 못하고 탈락하는 수도를 안겼다. 지난해 무려 6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올해도 지난 9일 슈퍼컵(트로페 데 샹피옹)에서 4연패 및 통산 14번째 우승을 달성하며 기분 좋게 시작한 PSG로서는 충격적인 패배였다.

PSG가 이 대회 32강에서 탈락한 것은 2013-2014시즌 이후 처음이다. 당시 PSG는 리그1(1부) 소속 몽펠리에에 1-2로 져 16강에 오르지 못했다. 파리FC는 지난 시즌 프랑스 리그2(2부)에서 2위를 차지해 이번 시즌 1부에 오른 팀이다. 파리FC가 프랑스 프로축구 최상위 리그 무대에 선 것은 1978-1979시즌 이후 무려 47년 만이다.

그동안 파리FC가 프랑스 1부 리그에서 뛴 것도 1972-1973, 1973-1974, 1978-1979 세 시즌뿐이었다. 1969년 창단한 파리FC는 1970년 스타드 생제르맹과 합병해 파리 생제르맹으로 거듭났으나 팀의 정체성을 놓고 내부 분열이 생기면서 1972년 다시 독립했다. 파리FC는 2024년 프랑스의 명품 그룹 루이비통모에헤네시(LVMH)를 소유한 아르노 가문이 오스트리아 음료 회사

레드불과 함께 팀을 인수하면서 프랑스 프로축구의 판도를 바꿔놓을 팀으로 급부상했다.

올 시즌 리그1에서 파리FC는 승점 16(4승 4무 9패)으로 18개 팀 중 15위에 자리하고 있다. 리그1 5연패에 도전하는 PSG는 승점 39(12승 3무 2패)로 2위에 올라 있다.

앞서 PSG와 파리FC는 1978-1979시즌 리그1 무대에서 두 차례 '파리 Derby'를 벌여 모두 무승부(1-1, 2-2)를 거뒀다. 이후 두 팀은 5일 리그1 17라운드에서 맞붙었다. PSG는 파리FC를 안방으로 불러들여 2-1로 눌렀다. 하지만 파리FC가 8일 만에 같은 곳에서 성사된 재대결에서 복수에 성공했다. 파리FC는 PSG에 2부 1패 뒤 창단 첫 승리를 거뒀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이날 PSG는 무려 25개의 슈팅(유효슈팅 7개)을 기록하고도 슈팅 4개(유효슈팅 2개)에 그친 파리FC에 무릎을 꿇었다. PSG는 정예 멤버인 흐비차 크바라츠 헬리아, 곤살루 하무스, 브레들리 바르톨로 공격진을 꾸려 파리FC에 맞섰다. 허벅지 부상으로 회복 중인 이강인은 이날도 결장했다. 경기는 PSG가 주도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파리FC 골키퍼 오베드 은캄바디오의 선방이 더해져 좀처럼 균형이 깨지지 않았다. 전반을 득점 없이 마친 뒤 PSG는 선수 교체로 돌파구를 찾아보려 했으나 여전히 경기는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그러다가 PSG의 공세를 잘 받아내던 파리FC가 후반 29분 새 역사의 문을 열었다. 전반 40분 이코네가 역수 상황에서 일란 케발의 패스를 이어받아 페널티지역 안 오른쪽에서 오른발 슈트로 PSG 골문 왼쪽에 꽂아 넣었다. 이후 파리FC는 7분 추가시간까지 계속된 PSG 공격을 막아내면서 승리를 수확했다.



파리FC 선수들이 생제르맹을 꺾고 기쁨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슬개골과 고관절의 염증

## in hancer Plus™

### 관절영양제의 혁명

# 인한서 플러스

글루코사민 + 콘드로이틴 + MSM + 브로멜라인 + 레시틴



오프라인 전용



온라인 전용

## 관절 관리는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